

#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고 승 한\*\*

##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제주잠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성과 가치
  - 1) 제주잠녀의 이미지와 역할 변화
  - 2) 제주해녀의 삶, 노동, 그리고 문화
  - 3) 사회적 자본으로서 해녀공동체 활동
4. 제주해녀의 생활문화적 가치 보존을 지향하면서  
참고문헌

## 1. 들어가면서

제주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전형적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오곤 했다. 제주해녀들이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참여하여 억센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 채취를 통한 소득으로 가정경제의 주도자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노동생산활동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않고 그 가치와 역할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제주해녀들은 가사노동, 자녀교육, 집안의 대소사일, 그리고 농사일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그들은 과도한 초과노동에 직면하였다. 이런 초과노동의 동원은 여성의 노동착취 혹은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이 글은 탐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주관한 「제주해녀의 보전과 계승 방안」 대토론회 (2004. 9. 24)에서 발표한 “제주해녀의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더구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주해녀들은 역사속에서 사회저항가로 활동했으며 혹은 오늘날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해녀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적 혹은 사회적 가치와 역할들은 제주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상징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제주해녀의 삶과 일속에서 생산 및 재생산되어져 나오는 의미성과 상징성들은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주해녀는 역사적 존재로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삶의 문화적 가치과 양상들이 달리 규정하게 된다. 사회현실에 대한 의미와 가치부여는 사회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 과정속에서 결과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형성된다 (Berger; Luckman, 1966).

다시 말해서, 행위자들은 일상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현실들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외재화함으로써 서로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역동적 관계속에서 정의(definition)하고 재정의(re-definition)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지배적인 사회적 규정으로 인식되고 확산되어 하나의 제도로 자리매김되게 된다. 이런 지속적 정의 및 재정의 과정속에서 행위자들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의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해녀들이 지닌 근면성, 강인성, 그리고 독립성의 상징화된 의미성들이 과연 급격히 변화된 오늘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해녀들이 자신들의 의미와 가치를 정의 및 재정의하는 과정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간여되어 있는지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주변집단 혹은 약자들에 대한 의미규정들은 대체로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는 먼저 제주해녀에게 부여되어 왔던 의미와 가치들이 과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제주해녀들의 일상적 삶, 노동 및 문화 그리고 조직적 사회활동이 어떤 의미와 가치들을 함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해녀들의 존재성과 가치들이 지속되려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어서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여 왔는가를 서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제주해녀들이 오랜 역사적 과정속에서 구상해 온 그들의 일상생활과 세계를 설명하고 그 의미와 가치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성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한 이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어서 제주잡녀들의 일반적 사실들에 근거한 가설적 검증을 시도하거나 혹은 경험적 일상성으로부터 특별한 실체들을 설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해녀들에 대한 제한된 문헌조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의도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밝혀둔다.

## 2. 제주잡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성과 가치

### 1) 제주잡녀의 이미지와 역할 변화

제주해녀의 이미지 형성과 변화는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전근대적 사회에서 제주해녀들은 해산물 채취물(주로 미역과 전복)에 대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지배자들로부터 과도한 공납과 관리들의 수탈의 희생자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제주해녀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일제강점기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봉건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했던 전근대적 사회에서와는 달리 일본 식민자본주의가 침입하는 과정에서 제주잡녀도 하나의 자본과 임노동 관계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직업집단으로 변화하였다.(권기숙, 1996) 이를테면, 전근대적 생산양식 체제속에서 제주해녀는 일상생활속에서 다만 생존을 유지하는 노동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근대적 사회에서 해녀들은 ‘생존양식’ 혹은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또한 다른 생산품과 교환하는 단순한 생산·교환체제하에 놓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체제를 대체시키면서 자본과 노동이 생산활동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로의 이행(transition)으로 말미암아 제주해녀도 자본, 노동 그리고 이윤이 치밀하게 고려되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평가받는 새로운 직업인으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해녀들도 자본 지배자가 제공하는 노동조건에 합의하여 일정 임금을 받는다는 계약조건을 수용하는 생산관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해녀들이 새로운 경제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노동투자에 대한 가치를 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 획기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육지부 해조업자들이 제주섬에 건너와 해녀들과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제주해녀들은 바깥물질에 나서서 육지부 연안의 해조류 채취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강대원, 1970:125) 제주해녀들의 육지부 바깥물질이 경제적 수익 증대를 가져옴에 따라서 바깥물질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이 시집갈 혼수를 스스로 마련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집 혹은 전답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집안에 가족성원들 가운데 해녀가 있어서 그녀가 가정경제에 소득창출자 혹은 수입제공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가족생계 유지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바깥물질이 제주해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됨에 따라 해녀들은 잠수활동 영역을 일본의 여러 연안, 중국 및 러시아의 지역까지 넓혀나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주해녀들의 바깥물질 영역을 동아시아 일대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여성들이 지리적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해녀들이 바깥물질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 그들 자신뿐 만 아니라 가정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결과로 바깥물질은 해녀들 사이에 개인적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서 혹은 가족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회로서 도전해 불만한 일로써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바깥물질을 경험한 제주해녀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주위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으로 이미지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바깥물질로 동아시아로 나갔을 경우에 그 만큼 위험부담(예컨대, 신변안전, 질병, 적응, 실종 등)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해조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객주 및 해조상인들이 잠녀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도 증가하였으리라 본다.

제주해녀들에 대한 거센 경제적 수탈은 일본 식민지 강점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는데 이때 해녀들은 일본 식민통치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직된 해녀

조합에 의해서 조직적인 착취를 당했다. 특히 1931-1932년 두 해 동안에 제주 해녀들은 생존권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수탈에 못 견디어 생존권 투쟁으로 나섰다. 급기야 항일투쟁으로 이어졌다. 제주해녀들의 항일투쟁은 북제주군 구좌읍과 성산읍 및 우도면 등지에서 거세게 일어났으나 그 당시 최대 규모의 어민투쟁이었으며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영돈, 2000)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제주잠녀들은 새로운 직업집단으로 편입되면서 임노동 고용관계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속에서 생산의 피지배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해녀들은 보다 많은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바깥물질에 나서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임금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항상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탈을 강요당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주해녀들은 일제의 수탈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집단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생존권 투쟁에 강력히 나서게 되었으며 급기야 항일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로써 제주해녀들은 외세의 억압에 저항하는 투쟁가의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독립운동 의식을 사회적으로 고취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동아시아 지역으로 바깥물질 나갔던 제주해녀들은 점차 귀국하게 되었고 바깥물질 해녀수도 점차 감소한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제주잠녀수는 무려 24,268명에 달하였다.(유철인, 2001: 16)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제주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는 여전히 자급자족형 농업사회였으며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런 경제적 여건 속에서 제주해녀들은 여전히 생계유지형 가정경제체제하에서 주도적 생산자-소득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의 지역농업이 환금작물 (특히 감귤생산) 재배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관광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제생산 기반 뿐 만 아니라 지역개발 정책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직업분화도 다양하게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사실상 밀감생산이 지역경제의 핵심적 산업부문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전통적 생계유지형 농업구조가 재편화되어 환금작물 생산의 상업농 시대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양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주해녀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1970년에 제주해녀수는 60년대의 절반 수준인 14,143명으로 급감하였으며, 그리고 2001년에는 5,611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30여년 동안에 약 4분의 1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1년에 전체 해녀들 가운데 50세 이상은 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0-40대는 18%이고 20대는 거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제주도, 2002)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 산업 (예컨대, 여행업, 판매서비스, 음식업, 등)이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고, 또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들이 아들과 동등하게 딸에게도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들의 상급학교 진학 열망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해녀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 만큼 훨씬 높아졌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제주해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들의 이미지와 역할은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업농 체제하에서도 제주해녀들은 영농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뿐 만 아니라 해산물 채취에도 종사하여 이중적 경제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해녀들의 경제적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요 소득원 보다는 보조적 소득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영농규모가 적어 농업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해녀들이 얻는 농외소득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록 해녀수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녀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해녀 자신의 삶과 노동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생산자로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해녀에게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지배적 사실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 제주해녀의 역척스런 삶의 과정속에서 생산 및 재생산되어온 이미지는 대체로 근면성, 강인성, 독립성, 건강성, 자율성 등으로 특징화되어 나아가 제주여성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제주해녀의 사회적 이미지화는 압축성장의 경제개발 시대에 일반인들이 본 받아야 할 상징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혹은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동원화 전략은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면에는 여성 노동력 동원과 착

취들이 은연중에 정당화시키는 의도된 형상화가 배여있다. 특히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대중매체 (예컨대, 대중잡지, 여행잡지, 신문, 방송, 등), 제주해녀를 소재로 만든 소상품, 해안도로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잠녀 조각상 등이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 및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녀들의 삶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안미정, 1998)

오늘날 양식산업이 발달되어 해녀회 (혹은 어촌계 조직)에서 공동으로 마을 앞바다를 일정 구역을 차지하여 독점 운영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해녀들은 특수한 직업집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의 대부분 여성들이 해녀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오늘날은 일부 나이든 여성들만이 종사하는 경제적 활동영역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해녀조직이 해산물 채취 혹은 양식업 운영을 독점하므로써 개인적 그리고/혹은 조직의 경제적 수익을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해녀활동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깊은 바다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기피해야할 3D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 업종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나이 어린 청소년 여학생 혹은 젊은 여성들이 장래에 선택할 직업적 활동영역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현재 해녀로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해녀’ 직업을 권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이미지가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더욱 위축시키고 스스로 좌절감을 갖게 만든다. 한국사회에서 1차산업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적 위세점수가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 (최태룡, 2002)에서 직업집단으로서 제주해녀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젊은 여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회적 이미지 형성과 고착화는 제주해녀의 세대간 계승의 단절을 촉진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2) 제주해녀의 삶, 노동, 그리고 문화

제주해녀들이 자급자족 생계형 경제체제하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억척스런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많

은 제주여성들은 대부분 밭농사 그리고/혹은 물질노동에 참여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해 나갔다. 이즈미 세이이치 (1999: 183)는 1930년대 제주해녀의 일상생활의 단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7, 8월의 잠녀의 하루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자들은 아침 2시간은 밭에서 김매기에 종사한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땀을 흠쳐내며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수명 또는 십수명이 일어나서 집으로 향한다.(중략) 잠수를 일연속(一連續)이나 이연속 계속하면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은 다음 다시 밭으로 나간다. 오후 4쯤이 되면 바다가 따뜻해진다. 다시 누군가가 ‘물질하러 가자’고 말하면 줄줄이 바다로 나간다. 이번엔 저녁노을이 해상에 피와 같이 흐르고 화산자갈이 흩어지는 산간지대가 보랏빛으로 빛나기까지 그녀들은 일을 계속하고 해가 질 무렵 용암의 언덕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사이 남자들은 아이들을 보거나 잡담들을 하거나 낮잠들을 자면서 느긋하게 보낸다.

이처럼 해녀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과 물질을 병행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보냈다. 제주지역에 밀감재배가 성행하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제주농업은 거의 밭작물(예컨대, 보리, 유채, 조, 바늘, 감자, 고구마, 배추, 파, 마늘, 당근 등) 재배에 의존하였다. 이런 작물재배에 여성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고 농기계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과 출하에 이르는 농업생산 전 과정에 여성의 노동량과 노동강도가 크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해녀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해녀에게 물질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해산물(예컨대,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는 노동이다. 이런 물질행위는 거친 바다에서 자칫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녀들은 물질을 통하여 괜찮은 경제적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일거리로 괜찮은 노동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해녀에게 경제적 보상은 물질의 기량에 따라 달리 얻게 된다.



해녀들의 물질행위가 다른 일보다 경제적 수입을 많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일터인 셈이다.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특정한 기술이 없는 나이든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직업은 대부분 비정규직 시간제 단순 노동직이다. 이런 단순노동직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해녀들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농업소득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물질을 함으로써 경제적 수입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정한 소득원이 없는 해녀들에게 물질은 소득을 창출할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활을 유지케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

제주해녀들이 물질행위에 참여하여 경제적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게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어찌면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레 물질을 해 온 결과로 노동과정에 참여하는 가능성도 많다. 물질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어린시절부터 해산물 채취의 특수 기술을 학습하고 획득하여 물질노동에 참여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모습들이 다음 이야기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면 누구나 바다를 놀이터로 삼아 자란다는 생각으로 자랐습니다. (중략) 저는 늘 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대부분 바닷가에서 놀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언니들과 어울려 바다에 뛰어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생 직업이 되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적령기가 되어 결혼을 한 후에도 잠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습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산없는 우리에게겐 더없이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 일을 거의 매일 하였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는 바다에는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젊었을 때라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으며, 큰 소득을 안

겨주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략) 제주의 산업구조가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쉬는 날에는 밭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면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며 항상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고송환, 2002: 11-12)

제주해녀들은 자급자족농 그리고/혹은 상업농 (주로 환금작물재배)이 지배하는 농업생산체제에서 영농활동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농업생산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민이었으며 동시에 바닷가에서 물질노동을 하는 어업생산주체로서 두개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이중의 직업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급자족 농업이 지배한 시기에는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사 일이 대부분 여성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해녀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상업농이 확산되고 농업기계화가 보편화된 시점에서도 해녀들은 농사일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물론 환금작물 (특히 밀감, 파인애플)이 도입되어 과수재배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업소득이 괜찮아서 일부 해녀들은 물질노동은 그만두고 영농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전적으로 밭작물 (예컨대, 파, 마늘, 당근, 감자,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는 농업지역에서는 아직도 해녀들은 힘든 농사일과 물질노동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제주지역의 농가에서 영농활동을 계승해 나갈 젊은 영농후계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여성농민으로서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해녀들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 상황이 해녀들의 물질노동으로부터 은퇴를 더욱 가속화시켜 해녀수의 급속한 감소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가사노동 (예컨대, 청소, 세탁, 요리 등)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 즉, 농사일과 물질노동으로 하루 일을 마치고 완전히 소진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사일은 그들이 감당해야할 몫이었다. 더구나 해녀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일들도 대부분 해내야 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집안 및 친족의 경조사 일

(예컨대, 제사, 명절, 결혼, 장례 등)을 준비하거나 돕는 일에도 빠지지 않고 해야 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가부장적 문화 및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여성지배의 메카니즘이 강하게 작동되는 결과라 생각된다.

제주해녀의 삶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노동행위들은 일상적 삶의 애환들을 그려내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나은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인고의 연속이었다. 제주해녀의 일상적 노동과 삶의 과정에서 그들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정서적 애환과 절규, 감정상태들이 신화, 춤, 굿, 노래, 그리고 언어속에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잠녀노래는 어업노동요로서 개인적 삶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들의 표출이며 동시에 집단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좌혜경, 2002) 다시 말해서, 잠녀들의 개인적 일상의 삶과 집단적 활동으로 나오는 감정과 정서들이 다양한 문화양식들로 체화되어 결과적으로 잠녀들은 자연스럽게 주체적 문화생산자의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동시에 문화적 생산을 유도하는 촉매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현대소설을 쓴 외지인 (육지)출신 작가 혹은 제주출신 작가들은 제주해녀를 소재로 ‘성적 이미지로서 제주해녀’ ‘생활인으로서 제주해녀’ 그리고 ‘역사적 격변속의 제주해녀’의 다양한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윤, 2004: 111-139) 여러 소설속에서 해녀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얼굴, 피부, 몸매, 옷 등으로 남성들에게 성적 매력을 주는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출신 작가들은 제주해녀를 하나의 성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보다는 억척스런 삶을 개척하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직업인 그리고/혹은 생활인으로서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식민지 지배와 착취의 격변기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 중심에 해녀들의 정치적 투쟁과 고난들이 소설속에 형상화되고 있다.

해녀들이 과거에는 삶 그 자체로부터 문화를 창출하였던 주체자였으며 동시에 문화생산의 촉매자였다. 그러나 오늘날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또한 해녀에 대한 사회적 지위 및 평가가 오래 전에 비하여 훨씬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해녀는 사회적으로 주변집단 (marginalized group)으로 머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시대적 환경변화에서 해녀들은 그들 선배들이 과거로부터 창출하고 지속해 온 문화적 유산 (예컨대, 노래, 춤, 굿, 의례, 등)들을 겨우 계승하는 보존자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해녀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은 오히려 전문적 연구집단 (예컨대, 인류학자, 사회학자, 민속학자, 언어학자, 작가, 예술가, 등)에 의해 보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제주지역에서 개최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제주해녀문화’라는 주제로 이벤트성 축제가 열린다. 이런 ‘해녀축제’ 과정에서 해녀들은 적극적 참가자 혹은 연출자로서 보다는 초청받아 참가하는 객체적 입장으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해녀들의 문화적 의미성과 가치들이 간혹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왜곡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경제적 생활에서 전문직업인, 그리고 문화적 생산자 역할 및 촉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과 더불어 물질행위는 해녀들에게 일상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주해녀들이 물때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물질노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료의식, 연대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느껴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해녀들 개인에게 물질은 중노동과 다름없이 힘이 들지만 강한 동질감과 연대감을 갖는 집단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개인적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풀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단계 상황에서 해녀들의 일터는 차츰 공동화(空洞化)되어 가는 현상을 확연히 관찰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의 물질행위가 경제·사회적 의미를 함의하는 노동 (일) 혹은 직업적 활동영역으로 보다는 단순히 나이든 해녀들에게 작은 용돈이나 버는 일 혹은 심심풀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엿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적 활동으로서 해녀의 노동행위는 사회·경제적 의미와 기능적 가치를 가진 범주로서 보다는 단순히 취미활동의 일환 혹은 사라질 직업범주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세대 (약 30년) 후에는 거의 모든 해녀들이 은퇴하게 되면 제주해녀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없는 역사적 유산 혹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 3) 사회적 자본으로서 해녀공동체 활동

제주해녀는 직업적 활동(전업이든 부업이든)으로서 물질을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들의 해녀활동은 집단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져 나간다. 특히 물질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력 위주의 생업생산체계를 이루고 동시에 조직으로서 해녀공동체(혹은 잠수공동체)를 형성한다.(한림화, 2002)<sup>1)</sup> 그런 측면에서 해녀들은 하나의 집단조직에 속하여 조직체의 속성과 원리에 바탕을 두어서 행동하게 된다. 해녀들이 물질노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사결정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일단 물질을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해녀공동체조직의 규범, 관행, 권력관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잠수공동체는 나름대로 잠수만의 문화를 창출하여 향유하였다. 사회성 면에서도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등 보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였다. 제주의 바닷가 마을 전역에 잠수공동체가 구축된 점은 제주사람의 삶의 질과 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불턱>은 잠수가 <물질>을 하는 바다의 갯가 양지끝에 놓인 노천탈의 장을 일컫는다. 그 본래의 뜻은 화톳불자리를 말하는 <화덕>이다..... 엄연한 의미의 잠수공동체 혹은 <잠수의 세계>는 바로 <불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불턱>은 잠수공동체의 집합장소일뿐더러 <잠수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실질적인 잠수공동체가 형성되며 후대잠수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고 직업이 전승된다..... 전통적인 잠수공동체의 의결기구인 <잠수회>이었고 의결방법은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었다. 의견차이가 심하여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는 대개 최종결정권은 그 지역잠수공동체의 최고참인 <웃어른>이 내리는 결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였다.(한림화, 2002 : 59)

1) '해녀'하는 호칭은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잠수'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강대원, 1973; 한림화·김수남, 1987).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잠수공동체'도 '해녀공동체'로 사용하였다.

제주해녀는 제주여성 사회에서도 대규모로 조직화된 대표적 여성조직의 하나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해녀공동체가 해녀 개인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사회조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자본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Kim, 2002).<sup>2)</sup> 제주해녀들이 바다속에서 어패류와 해초류를 채취하는 직업적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사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회·경제적 행위자들이다. 이들 행위자들은 개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해녀회(혹은 잠수회)로 알려진 자발적 조직체에 가입하게 된다. 제주지역에서 해녀들이 있는 모든 바닷가 마을에는 해녀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의 해녀회는 개별 해녀들의 건강문제 및 경조사 뿐 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즉 해녀회 활동을 통해서 개별 해녀들이 갖는 경제적 이권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책무를 지기도 한다. 예컨대, 해녀회는 해산물 채취로 인한 자원고갈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바다환경 및 자원보존(예컨대, 스쿠버다이빙들의 불법채취 금지, 하수종말처리장 반대, 비해녀회원의 해산물 채취 금지, 등)에도 적극 나서며, 동시에 마을의 단합, 홍보, 그리고 수익사업에 목적을 둔 마을공동체 축제(예컨대, 자리돔 축제, 한치축제 등)에도 적극 협조한다. 이외에도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마련 혹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를 주관하는 일도 해녀공동체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치러지기도 한다.

해녀공동체의 활동은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결속력, 자율성,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제주도, 1996), 반면에 해녀회의 운영은 정당화된 권위관계와 권력의 분산화에 의존하고 있다(Kim, 2002). 해녀회 조직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사안의 해결은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공동체 조직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의사결정권이 독점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민주적 합의 절차와 토론문화에 근거하여 해녀회 활동이 전개되

2) 사회적 자본은 개인 그 자체에서 보다는 개인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행동양식을 만들어 내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그리고 인적자본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생산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Coleman (1988; 1990)을 참고할 것.

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은 오늘날 시민사회 운동차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주해녀회가 보여주었던 생존권 투쟁과 항일운동은 해녀들의 공동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투쟁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제주해녀공동체는 일제에 의한 수탈과 억압지배구조를 타파하여 식민지통치체제를 해방시킬려는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오늘날 마을해녀공동체 조직을 둘러싼 변화된 상황 (예컨대, 해녀회원수의 급감, 해녀의 노령화 확산, 여성직업의 다원화, 직업으로서 지위 하락, 사회적 편견, 지역사회 및 타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감 부족, 해녀회 활동 및 사업의 한계, 조직활성화 방안의 부족, 결속감의 약화 등)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바닷가 마을에서 해녀들의 자발적 조직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능하여 왔지만 앞으로 해녀회 자체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해녀회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의 생산 및 재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다.

#### 4. 제주해녀의 생활문화적 가치 보존을 지향하면서

제주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해녀들은 평범한 제주여성이면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직업인이면서, 그리고 마을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 그런 역사속에서 해녀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아울러 제주해녀들의 일상적 삶과 노동의 특성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더구나 해녀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해녀공동체 (혹은 잠수공동체) 활동도 과거의 모습들을 찾기가 힘들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여 향후 제주해녀의 생활문화적 가치와 유산들을 여하히 잘 보존해 나갈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가를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해녀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특정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 혹은 노력만으로는 체계적 연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해녀 연구가 제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학 혹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제주학’ 연구분야와 관련시켜 ‘제주해녀연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해녀들의 역사적 유산과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가칭 ‘제주해녀박물관’이 설립하는 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해녀박물관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에 제주해녀문화를 종합적으로 체득해 볼 수 있는 학습공간의 기능성을 살리는데 철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젊은 세대들에게 제주해녀들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행사 (예컨대, 정기적 학술세미나, 포럼, 해녀 관련 각종 문화행사, 해녀와의 대화, 해녀들과의 체험학습 등)들이 비상업적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해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제주해녀문화 계승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해녀생활에 새로 진입하려는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젊은 여성들이 과거 해녀생활을 하다가 중단하여 다시 시작할 경우 혹은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존하는 해녀들이 보다 오래 동안 해녀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는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다 나은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 자녀교육, 교양강좌개설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섯째, 제주해녀공동체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게 혁신하여 여타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자발적 결사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다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각종 개발문제들과 관련해서도 다른 NGO 단체들과도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해녀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해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상업적 왜곡, 그리고 낮은 직업적 지위 등으로 해녀의 직업을 3D 업종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젊은이들이 선택해서는 안될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2. 김동윤.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해녀.” 「제주 해녀(잠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 <해녀학> 정립 가능성 모색: 문화비교론적 관점」 pp. 111-139. 좌혜경 외.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3. 김영돈. “제주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제18집, pp. 125-133. 비교민속학. 2000.
4. 고송환. “제주잠수를 말한다.” 「제주잠수의 일터보존가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pp. 11-13.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5. 권기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pp. 227-258. 한국사회학회. 1996.
6. 안미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 연구」 pp. 153-193. 제주학회. 1998.
7. 유철인. “해녀의 삶.” 「전통문화강좌」 제주교육박물관. 2001.
8. 제주도.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9. 좌혜경. “해녀노래의 노동기능과 정서.”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pp. 186-195.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세계섬학회 및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10. 최태룡. “직업위신의 변화.” 「직업과 노동의 세계」 pp. 29-58. 김경동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박영사. 2002.
11. 한림화. “제주잠수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동성.”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pp. 57-61.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세계섬학회 및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12. 한림화·김순남. 「제주바다 잠수의 세계」 한길사. 1987.
13. 이즈미 세이이치. 「제주도」 동경: 동경대학출판회. 1966. 홍성묵 역. 1999. 「제주도」 제주도: 우당도서관
14. Berger, Peter and Thomas Luckma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Books : New York. 1966.
15. Coleman, J.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1988.

\_\_\_\_\_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1990.

16. Kim, Soonhee. “Jeju Island Women Divers’ Association: A Source of Social Capital.” 「Values of Women Divers and their Cultural Heritage」 pp. 250-270. The First World Jamnyeology Conference.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and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2.